

- 강진**
탄소제로·녹색수로
- 장흥**
수열에너지도시
- 해남**
뜰뜰한 자원순환 마을
- 순천**
고가다리 청수원

'스마트 그린도시' 선포

내년까지 친환경 공간 구축
'종합선도형' 강진 167억 투입
'문제해결형' 3곳 100억 씩



이승욱(오른쪽 두번째) 강진군수와 한경애(여섯번째) 환경부장관 등은 지난 30일 경기 화성시 모두누리문화센터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 및 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과 장흥군, 해남군, 순천시가 '스마트 그린도시'를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와 지난 30일 경기 화성시 모두누리문화센터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도시 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을 진단한 후 기후·물·대기·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진행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 사업을 구상해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5일 전남 4곳을 포함해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강진은 전국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됐다. 순천시와 장흥·해남군은 문제해결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강진군에는 167억원을, 순천시와 장흥·해남군에는 각각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진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에 입각해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천택, 양림, 치료'를 실천하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구한다. 남포·목리·평동·강진만생태공원 일대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해 강진만 생태계 보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한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만 이루어진 도로 공간에 가로수와 어우러진 탄소제로 교통로를, 콘크리트수로로 친환경 녹색수로로 탈바꿈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장흥군은 '물, 또다른 혜택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구한다. 장흥담·탐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이다. 장흥읍 일원에 2.5km의 수열 원수라인 구축, 토요시장 내 수열 체험존 설치,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건축, 수열 실증 시범하우스 구축(8470㎡), 정남진 물과학관 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수열홍보관 등을 조성한다.

해남군은 2년간 자원순환, 환경교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환경 분야를 결합한 '뜰뜰한 자원순환마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시가지 마을에 재활용 교환센터와 자원순환 입체체험장, 재활용 동네은행을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공동정발과 미니화단 조성, 스마트 CCTV를 설치한다. 순천시의 스마트 그린도시는 '청수원(淸水園)'이다. 매연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장전동 고가다리 아래 4만4000㎡ 부지에는 빗물을 재활용한 마을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 숲 등을 조성한다. 고가다리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은 400t의 저장탱크를 거쳐 정화해 정원수로 쓴 뒤 동전에 유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황룡강변 푸드트럭 신청하세요

장성군, 5~9일 운영자 모집



장성군 황룡강 일대에 조성된 '5월의 꽃길'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으로 사랑받는 황룡강변을 무대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황룡강 푸드트럭 운영자는 영업 권역별로 총 5대를 선정하며,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지난달 22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푸드트럭은 영업자 별로 1대만 운영할 수 있고

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장성군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장성군이 지정한 제2황룡교, 문화대교, 서삼장미터널, 장성대교, 힐링허브정원 등 5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성 황룡강은 봄·가을 개화 시기마다 형형색색의 10억 송이 꽃이 피어나는 '꽃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황룡강은 장성군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다섯가지 주제 정원' 등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편의시설을 확충 차원에서 서삼장미터널과 황미교 인근에 소매점을 설치하고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황룡강변에서 푸드트럭이 본격 운영되면 꽃단지를 찾는 관람객들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시 승격 40년' 나주, 기록물 찾습니다

사진·문서·기념품 등 5월까지 수집...7월 전시회

나주시가 '시(市)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시정 기록물 수집에 나섰다. 나주시는 오는 7월 중 개최 예정인 '시 승격 40주년 기념전'에 전시할 행정 관련 기록물을 오는 5월31일까지 기증 방식으로 수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시 승격 정책·행사, 국민 관심이 높았던 과거 사건, 이슈와 관련한 사진·문서, 각종 상장과 상패·표창·기념(선물)품 등이다. 역대 시장·군수와 관련된 기록물과 옛 사진(앨범)·엽서·우표·일급봉투·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행정 사무용품도 수집 대상이다.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과 전직 공무원들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기록물과 함께 기증하면 된다. 수집한 기록물은 전시회가 끝나면 나주시 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전남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

관 등 상급기관에 보존 중인 시정 기록물도 함께 파악해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중서부에 자리한 나주는 지난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해 시로 승격했다. 처음에는 '금성시'로 이름 지었다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1985년 '나주시'로 개칭했다. 이후 1995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농촌지역이던 나주군까지 통합해 현재의 도농복합시인 나주시로 탈바꿈했다. 지난 2014년에는 빛가람혁신도시가 급전면과 산포면 일대에 조성되면서 지역 발전의 발판이 마련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준비 중인 기념전은 나주시가 걸어왔던 지난 40년의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는 1981년 7월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해 금성시(市)로 승격됐다. 금성시 탄생을 축하하는 흥보탑과 현수막이 설치된 옛 나주시내 모습. <나주시 제공>

장성군 '현미경 계약심사' 통했다

사업 발주 전 적정성 검토...지자체 10억 등 3년간 47억 절감

장성군이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지난해 10억8800만원의 현세 낭비를 막고, 최근 3년간 총 47억6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사업 발주 전에 예산 사용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77건을 계약심사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10억8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항목별 절감액은 공사 8억3100만원(98건), 용역 2억3400만원(100건), 물품 관련 2300만원(79건) 등이다. 장성군은 매년 개정되는 품셈 등 관련 자료와 사업 목적·규모·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공법의 적합성,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심사 역량을 강화해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링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